

'평등한 세상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제8회 젠더문화축제 성료

도내 여성계가 하나되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제8회 젠더문화 축제가 지난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일원에서 성황리 열렸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젠더문화 축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송성환 도의회의장,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 각급 기관장 및 여성단체장, 도내 대학생, 재직남성·여성,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평등 세상을 향한 여덟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도내 37개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프로그램을 공동주관하는 등 여성·남성·대학·기업 관련 단체들의 참여형 축제로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오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구조'라는 주제로 이효린 대표(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가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젠더문화축제에 신설된 '청소년 토크'는 전라중학교 학생 80여명이 정



제8회 젠더문화축제가 지난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일원에서 성황리 열렸다.

주영 대표(같이교육연구원)와 함께 '나답게 살아가기'에 대한 주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준비한 '내내의 한법 불합치, 그 의미와 과제

에 대한 정책포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관련한 슬기롭게 조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다.

이후에 센터장은 "평등 세상을 향한 노력은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축제를 통해 도민 모두가

성평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cre.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보호와 양육,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 회에서 아동정책 시야 넓혀달라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 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 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약 전과 취약 이후에 총

분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 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전 중 하나인 결

핵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 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잘 이행돼 확실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신규 환자 발생이 줄고 있다"면서도 "결핵이 기승을 부리던 1950~60년대에 수많은 국민이 보균자가 됐고, 그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면역력 약화로 결핵에 걸리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 때에 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조 및 적조 대책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작년에 정부가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며 환경부에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발발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연구개발)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해와 재난의 대처에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연구개발)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도교육청,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사용자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0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자료 제공업무 담당 고교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대입전형

무 부담 감소 및 지원 서류 제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민원서류 및 성적표 위·변조와 학생 사진 제공을 통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온라인 제공 계획과 사전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나이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대상은 2015년 2월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전산자료 중 대입전형에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 제공된다. 특히 오는 6월 3~11일까지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는 전국 모든 고교교육을 대상으로 사전운영이 이루어지고, 사전운영 종료 시 내 용은 일괄 삭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확한 업무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방장비 표준규격 12종 연내 개발

인증기관에 소방기술원 지정... 중장기 혁신방안도 마련

올해 안으로 국제 추세를 반영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12종이 개발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관서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T/F는 소방기술원을 통해 국제 기준을 반영한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성능인증 체계를 위탁 개발하게 된다. 다문화·복합화하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에 걸맞는 소방·구조장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소방장비 17종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만 마련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소방장비 개발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유럽의 71.3% 수준 밖에 안된다. 시간적으로는 53년 뒤쳐져 있다.

연내 새로 표준규격을 만들게 될 장비는 휴대용소방사다리, 휴대용 조명등, 조연차, 소방호스, 관창, 경광등, 소방차운전교육 프로그램, 혼용합장치, CAFS, 소방차용벨트

브, 보호장비 관리표준, 인명구조경보기 등 특수장비 12종이다.

이 장비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소방기술원의 인증과 현장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품질 모니터링을 거쳐 상용화된다.

예산은 총 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산당국에 6억원을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40%나 깎였다. T/F는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인증 대상 장비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인증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인증 전문인력의 자격과 관리까지 포괄하는 '소방장비 관리의 중장기 혁신방안'은 연말까지 내놓는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선진국 수준의 소방장비 보급이 절실하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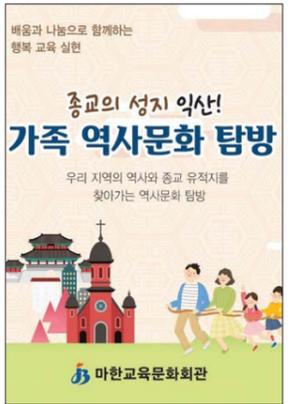
마한교육문화회관, 가족 역사문화 탐방 운영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 관내 학생과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종교의 성지 익산, 가족 역사문화 탐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 지역 종교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마련한 이번 역사문화 탐방의 주제는 '종교의 성지 익산'으로 익산에 소재하는 4개 종교의 유적지(나비위성당, 두동교회 구본당, 송림사, 원불교 중앙총부)로 탐방을 떠날 예정이다.

또한, 5세기 중엽, 익산 지역 세력 집단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입정리 고분'을 탐방하고, 과거 익산 운포와 충남 사전을 잇는 배를 운항했던 '꿈개나루'에서 황포돛배 탑승도 체험할 예정이다.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탐방 행사를 통해 가족 간, 세대 간 화합의 시간을 마련해 소통의 기회를 제



공하고,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찾아가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 예찬365데이케어,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간호학부는 문지원 원장, 유수옥 교수, 서명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예찬365데이케어와 산학협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예찬365데이케어는 행복한 어르신들

의 노후를 이끌어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노인보호센터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가장기요양 관련 분야에서도 현장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